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주     제: 코피노의 문제와 대책  
            코피노 아버지 찾기와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 일     시: 2016년 10월 5일(수) 15:00~17:3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
- 공동 주최: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국회의원  
                법무법인 세종 (사)나눔과 이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사)탁틴내일 (ECPAT Korea)



시 간	내 용	비 고
14:45~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등록</li> <li>■ 사전 안내 (5')</li> </ul>	
15:0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 및 국민의례 (1')</li> <li>■ 내빈 소개 (3')</li> <li>■ 인사 말씀 (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삼화 국회의원</li> <li>◎ 이용우 국회의원</li> <li>◎ 조배숙 국회의원</li> <li>◎ 김경협 국회의원</li> <li>◎ 최영희 탁틴애일 이사장</li> <li>◎ 김용담 나눔과 이음 이사장</li> </ul> </li> </ul>	좌장
15:2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장 : (사) 나눔과 이음 강기호 사무국장</li> </ul> </li> <li>■ 발제 4명 (60'/각각 10', 이토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장 : (사) 나눔과 이음 강기호 사무국장</li> <li>1. 코피노 아버지 찾기의 의미, 코피노 발생 원인과 문제점 이영희 (사)탁틴내일 대표</li> <li>2.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 법률 지원의 문제점 임지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li> <li>3. JFC(자피노) 지원정책 사례와 실효성 이토리에코 (JFC 네트워크 대표)</li> <li>4.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 현황과 지원 대책 고지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변호사)</li> </ul> </li> <li>■ 토론 4명 (40'/각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동남아과 조성만 과장</li> <li>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조용수 과장</li> <li>산업통산자원부 해외투자과 신동학 과장</li> <li>법무부 해외투자과 정병근 과장</li> </ul> </li> </ul>	이토리에코 발표 순차 통역
17:00~1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질의 응답 (35')</li> </ul>	
1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및 폐회</li> </ul>	

## 축 사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안철수 .....	5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	6

## 환영사

국회의원 김경협 .....	7
국회의원 김삼화 .....	9
국회의원 이용주 .....	10
국회의원 조배숙 .....	11

## 발 제

코피노 아버지 찾기의 의미 / 코피노 발생 원인과 문제점 이영희 .....	12
자피노 지원정책 사례와 실효성 이토 리에코 .....	41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 현황과 지원대책 고지운 .....	59

##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축사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 안 철 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토론을 진행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따르면 2015년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은 8만 9천여 명이고, 1년간 인적 교류는 17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한국인이 기업 투자, 은퇴 이민, 어학연수 등 다양한 이유로 필리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교류 이면에 코피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놓여있습니다. 일부 한국 남성들의 잘못된 성 문화와 낙태를 금기시하는 필리핀의 종교적 인식 등으로 인해 늘어난 코피노

는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코피노가 한국 국적을 지닌 국민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필리핀 정부 역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하던 코피노 실태조사가 갑자기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코피노 문제는 양국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코피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피노 가정 대부분이 아버지가 떠난 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코피노 가정에서 막대한 소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코피노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동포 2세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코피노 문제는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도덕적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적·사회적 문제이며 필리핀 내 험한 열풍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피노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피노의 권리를 찾고 그들이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새로운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축하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 지 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피노 문제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남성들의 악탈적 성의식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무어라고 언급하기조차 부끄럽고 현 사회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라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이 가져온 피해 중의 하나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코피노 아이들을 우리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온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여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피노 아이들이 입국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 특별귀화 형식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각 단계 단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깊이 있는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개진되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환영사

국회의원 김 경 협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국회의원 김경협입니다.

먼저 코피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힘써주신 사단법인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님과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님,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김용담 이사장님, 김삼화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코피노 친부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코피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혼혈 아동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코피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3만명에 달할 것으로 단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코피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문제 해결 방안 또한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OICA의 초청으로 필리핀 검찰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코피노 문제는 한국인 아버지가 부양책임을 지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코피노 문제에 손을 떼고 있는 우리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정말 낮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답답함을 느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코피노 엄마의 요청으로 코피노와 한국인 부친 사진을 올려 ‘코피노의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사이트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피노에 대해 현지에서 일부 이뤄지는 후원 역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회성 또는 홍보성 후원이므로 현지 여론을 잠재우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환영사

국회의원 김경협

먼저, 다른 나라가 자국민의 혼혈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 일본계 필리핀인, 자피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정부와 민간부문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기업들이 자피노를 후원하고 지원에 나섰으며, 자피노들의 자립을 위해 기술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계가 일본 국적이 없더라도 ‘부친의 생후인지’ 조건에 부합하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코피노는 우리의 혈통을 이어받은 한국계인입니다. 초국가시대에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인적자원입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피노의 인원, 교육상태, 생활수준, 아버지에 대한 정보 및 소재파악의 여부 등 기초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국회 및 민간부문과 협업하여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코피노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환영사

국회의원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제5정조 위원장 김삼화 의원입니다.

오늘 ‘코피노 아버지 찾기와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최를 해주신 조배숙, 이용주, 김경협 의원님과 법무법인 세종,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탁틴내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피노 3만 명 시대. 해외 성매매가 빛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양육 책임을 저버린 한국 남성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남성들의 부도덕성을 제기하는 지금, 코피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피노들은 아버지가 한국인임에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커녕, 양육비 이행, 국적 취득, 비자 발급 과정 등에서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코피노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코피노들이 아버지를 찾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피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 인권국가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코피노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

국회의원 이 용 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지역 국회의원 이용주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코피노의 아동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1세 아동이 부모로부터 잔인한 학대와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목숨을 걸고 맨발로 창문 밖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방관되어 온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정부는 아동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인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아이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코피노 아동 수는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것은 추정치일 뿐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코피노 아동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코피노의 인권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코피노의 인권문제는 언론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코피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론화 시킨다면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코피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와 정부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코피노의 아버지 찾기 및 아동인권 문제의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논의하여 코피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코피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피노 문제는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제1항에 따르면 ‘... 아동은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피노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를 통해 코피노의 아동인권문제가 공론화되어 국민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

국회의원 조 배 숙



안녕하십니까.  
조배숙 의원입니다.

한국 아버지를 둔 필리핀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를 위해 이 자리를 준비하신 김경협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피노들을 위해 애써 오신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행동,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6대 국회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던 정치인으로서 코피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이유는 성매매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피노 문제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위계에 의해 맺어져서는 안 되며,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상호 인격과 인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코피노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나 유학, 주재원이나 사업 등의 일로 필리핀에 가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부터 아버지를 찾는 아이들과 어머니를 돕는 일까지,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을 돕는 일부터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까지, 민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일하는 저를 비롯해서 외교통일위원회의 김경협 의원님,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삼화 의원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용진 의원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뜻 깊다 하겠습니다.

코피노들의 아픈 삶이 알려진지도 십 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코피노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를 돕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코피노 아버지 찾기”의 의미 코피노 발생 원인과 문제점

(사)탁틴내일 대표 이 영 희

## 코피노 아버지 찾기의 의미와 아동의 권리

이영희 ((사)탁틴내일 대표)

### 1. 코피노<sup>1)</sup> 아버지 찾기의 출발과 의미

- 한국남성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 성착취 피해국에서 가해국이 된 대한민국

○ 2004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음란물, 인신 매매에 관한 국제회의」와 ‘키리바시’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실태조사

- 2004년 11월 방콕에서 열린 유엔 산하 아동관련 기구들이 합동으로 개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 음란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키리바시 대표는 한국선원에 의한 아동 성착취 실태를 발표 하여 한국인에 의한 아동 성착취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sup>2)</sup>

-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sup>3)</sup>대표가 이 회의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여자 청소년들을 ‘te kore korea’(꼬레꼬레아)라 부른다는 보고를 접한 후 키리바시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2005년 6월 한국선원의 키리바시 청소년 대상 상업적 성착취 실태를 조사했다. 한국 선원들과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 및 여성들 24명 중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가 7사례였으며 성인 여성 중 18세 미만에 한국 선원과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가 두 사례로 미성년자가 3분의 1이 넘었으며 최하 연령은 14세였다.

1) 코피노(Kopino): ‘Korean’과 ‘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들을 지칭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코피노가 성매매로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의 이미지로 낙인화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피노의 낙인감 때문에 ‘JFC(Japanes-Filipino Children)’으로 바뀌어서 쓰고 있는데 한국은 ‘KFC’라는 명칭이 잘 알려진 업체의 상호명과 동일하여 대체할 용어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다.

2) 박선영·박찬걸(2012). 동남 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한국 역팍으로도 활동하며 2008년 (사) 탁틴내일로 단체명이 바뀌었다.

© ECPAT international이란?

ECPAT은 ‘End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으로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NGO들의 연합으로 1991년에 설립됐다. 현재 82개국에서 90개 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한국은 2004년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가 ECPAT Korea로 가입했다.

## ■ 키리바시현지조사

조사 대상이었던 24명 중 14세 1명, 15세 1명, 16세 1명, 17세 3명, 18세 1명, 19세 4명, 20세 3명, 21세 3명(1명 임신중), 22세 4명(2명 각각 4개월, 9개월 아들 있음), 24세 1명, 25세 1명(임신중), 미상 1명(10개월 아들 있음)<sup>4)</sup>

○ 2005년「한국 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실태 국제 심포지움」과 필리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실태조사

-2005년 11월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주최한 「한국 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실태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남성에 의한 아동 성매매 관광 문제가 논의 되었다.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엑파트(ECPAT)의 필리핀 지부장은 필리핀에서 아동 성착취를 가장 많이 하는 외국인으로 한국 남성을 지적하며 한국 남성의 아동 성착취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sup>5)</sup>

- 심포지움이 열린 후 정부의 지원으로 2006년 필리핀에서 한국남성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관광 현장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현지인들은 한국 남성들의 가학적 성향, 콘돔 사용 기피로 인한 필리핀 여성의 임신과 출산(코피노)문제를 지적했고, 젊은 유학생들의 성매매 문제 등을 처음 직면했다. 실태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한국남성들의 현지 성매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지탄을 받아왔다.<sup>6)</sup>

- 그나마 2007년 검·경 합동의 ‘해외 성매매방지 전담팀’이 서울 중앙지검에 구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에는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성매매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해나가는 등 해외 성매매 방지활동 나섰고 여권법 제12조와 따라서 해외 성매매 혐의자에 대한 여권발급 기간 1년~3년까지 제한 제19조에 따른 여권 취소 조치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4) 최영희 외(2015). (사)탁틴내일 20년, 탁틴내일.

5) 박선영·박찬걸(2012). 동남 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최영희 외(2015). (사)탁틴내일 20년, 탁틴내일.

## ○ 2012년 필리핀 2차 현장실태조사와 버려지는 필리핀 코피노 실태

- ECPAT 지역회의(2011.5): 한국남성들의 필리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및 코피노 피해 사례 보고되었고, 제5차 ECPAT 세계대회 (2011.11): ECPAT Philippines 의 한국남성들의 필리핀 성착취 문제에 대한 심각성 호소 및 실태 조사가 요청되었다. 또한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12)는 한 국은 아동 성매매 관광 송출국가로 분류하였다. 현재는 경유지이기도 하다.

-2011년 엑파트 국제회의에서 만난 필리핀 대표의 요청으로 2012년 두 번째 필리핀 현장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한국남성에 의한 필리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광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리핀의 마닐라지역과 앙헬레스지역, 세부지역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현지에서 만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남성들은 유독 13, 14세 어린 여성을 찾는 경향이 있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성을 웃돈 주고 사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현지인들은 코피노(Kopino)의 수가 1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6년 보라카이섬 대상 성매매관광 조사 시 한국이 가장 많은 수요국 으로 나타났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이 수요 1위였으나 2006년을 기점으 로 한국이 아동 성관광 1위가 되었다.”(ECPAT Philippines)

“앙헬레스 성매매 지역은 미군 철수 후 사양화 되어 갔으나 한국의 0000항공 사 개항 이후 성 관광객이 몰리면서 성매매가 다시 급증했다.” (현지 주민)

-조사결과 ‘한국 남성의 성 착취’유형은 1)성매매 관광 2)기업파견 임직 원의 현지처 3)유학생들의 성착취로 나뉘었다. 또한 한국남성들은 피임을 거 부하고, 음란물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적이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 고 거절 하면 약속한 돈을 안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몰려다 니며 성매매를 한다고 했다. 어떤 여성은 현장조사팀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 한 국 남자 만나서 당한 일이 떠올라 다시 분노할 것 같다면서 만남을 거절하기도 했다.

-한국 남성들에 의해 무책임하게 버려진 코피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정방 문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실감하고 왔다. 성매매로 태어난 여자 아이가 다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 2013년 「필리핀 코피노 실태보고 및 해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 한 기자간담회」

- 실태조사 후 2013년‘필리핀 코피노 실태보고 및 해외 아동성착취 근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버려지는 많은‘코피노’아동의 비참한 생활과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필리핀 사회의 밑바닥 계층으로 살고 있음을 한국사회에 알렸다.

-그와 동시에‘코피노 아버지 찾기’소송 추진을 선언하였고 ‘아버지 찾기’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의미와 함께 한국남성의 동남아 성매매 관광 및 아동 성착취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려 지는 코피노 문제의 근원이 한국남성의 무책임한 성행동에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한국인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수요를 차단하려는 의미도 컸다.

-이후에 엑팟 필리핀을 통해 아버지를 찾고 자하는 아동과 그 가족이 연결 되었고 이후 작게나마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아버지 찾기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 찾기는 쉽지 않았다. 탁틴내일과 연결된 사례는 그래도 아버지 의 인적 사항이 있었고 잠시라도 지원을 받았던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웠고 실제 아버지의 연락처도 바뀌어서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아버지를 찾아 양육합의를 한 것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연결한 사례가 있을 뿐이었다.

○ 2013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관광의 문제와 대책」국회토론회

-한국사회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곧바로 국회 남인순, 인재근, 서영교의원과 공동으로‘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대책’ 토론회를 열어 또다시 국회와 정부의 공동 대책을 논의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동남아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캠페인 벌이기도 했다. 특히 성매매 관광의 수요는 결국 가난한 동남아 국가의 아동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 ○ 2013년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한 질의 및 촉구

-국정감사의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해 경찰의 해외 현장 잠입과 사이버 수사대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성매매관광 수사, 외교부의 해외여행 여행객이 나 체류자 대상 동남아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의 여행사 감독 등을 요청했지만 행정부의 답변은 기획 수사를 하겠다고 하거 나 치외법권 해외 수사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할 뿐 제대로 된 대책과 적극적 조치 를 하지는 않았다.

## ○ 2014년 코피노 한국아버지 친자확인 소송 승소

-2014년 5월 말 ‘코피노의 한국 아버지 친자 확인 소송’승소 판결이 있 었다. 본 법인이 진행한 소송은 아니었으나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판결을 계 기로 다시 여론의 관심 속에 코피노가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정부의 무대책속에 그동안 동남아 국가에서의 한국 남성들의 잘 못된 ‘성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고 아 이들이 버려지고 있음 을 온 국민이 공감하게 되었다. 나아가 실제로 코피노 아동이 자신의 자녀가 아 니라고 부인했던 한국아버지의 무책임한 모습이 그 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코피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언론의 통해 보 도되었다.

## ○ 2015년 2차 코피노 실태조사와‘아버지 찾기’촉진

- 2015년 7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본 법인이 후원하고 있던 5가정 7 명의 아동과 가족을 방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엍팍 필리핀의 안 내를 받아 아버지 부재에 대한 코피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외모 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생 청소년 모습과 똑 같았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간혹 아버지가 한국인이며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 때문 에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방문을 통해 언어의 장벽과 소통도구의 한계로 쉽게 소통하기 어려운 한국 의 NGO와 코피노 또는 그 어머니들이 직접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를 찾을 수있 는 구체적인 자료와 연락방법들을 다시 함께 확인하게 되었다. 페이스북 연락 방법, 서로의 전화번호 확인, 호적증명 또는 출생신고서 부모혼인증명서 등으 로 아버지 찾기를 조금 더 구체화 할 수 있었다.

- 한국에 돌아와 아이들을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국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연락을 시도하고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 소송 전에 2가정 4명의 아이들은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고 코피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도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나마 제대로 연락이 될 만한 한국 아버지의 현재의 정보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 ○ 2015년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무료 소송 지원 협약

- 실태 조사 전에는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후원 없이는 NGO와 가난한 코피노 맘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코피노 소송의 경우 승소 금액의 30~50%라는 수수료의 부담은 아버지 찾기 소송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었고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무료 소송 지원을하기로 하여 탁틴내일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 지원 협약을 맺었다(2015.12.29). 이로써 실제적인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 ○ 2015년 WLK<sup>7)</sup>의 코피노의 한국인 아버지 사진 인터넷 게시

-WLK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코피노 맘들이 제공한 한국인 아버지의 사진이 게시되고 SNS를 통해 전파되어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진 공개로 아동의 생존권이나 아버지의 초상권 침해냐 여부 논란과 함께 일명 '코피노 비즈니스'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는 법률과 단체에 대한 의심에 대한 내용도 언론을 통해 조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피노 자녀에 대해 한국 아버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의 공감대가 매우 폭발적이었다.

#### ○ 2016년 필리핀 검찰총장 한국과 수사공조 협약 시 기자회견

-2016년 3월경 양국 수사공조 협약을 위해 방한한 필리핀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

7) We Love Kopino. 대표 구본창. 이 단체에 대해 지지와 수수료 의혹이 논란이 모두 있음

회견을 열어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배후가 한국인이란 점과 코피노 문제는 한국인 아버지가 부양책임을 지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버려지는 코피노에 대한 한국아버지와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해 다시 여론의 관심이 폭발되었다.

- 그러나 코피노 수가 1만~3만으로 보도되고 있는 현재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없을 뿐 아니라 코피노의 수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다. 매번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처음 받는 질문은 “코피노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였다.

#### ○ 2016년 코피노 아버지 찾기 소송 진행 중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피노 소송건수는 대략 100건 정도 된다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코피노 아버지를 찾는 소송은 매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본 탁틴내일도 소송서류의 준비과정에서 코피노 맘의 위임장이나 공증을 위한 원본서류를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거의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 찾기 소송 한건에 대해 2016.4. 8.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 그나마 아버지와의 소통이 빨라서 2016. 8. 9.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나마 소통이 되어 빨리 진행된 경우이다.

#### ○ 필리핀 여행객 1위, 4명중 1명이 한국인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2015년 필리핀입국 한국인은 133만 9678명이었다. 이는 하루 3,670명꼴이다. 또한 필리핀을 방문하는 전체 여행객수의 24.99%로 4명중 1명꼴로 한국인이 1위였다.

-2016년 세계한인의 날을 맞이하여 코피노 아동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버지 찾기’를 용이하게 하고 한국인으로서 코피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코피노 한국 아버지의 유형과 태도

○ 2012년 1차 코피노 실태조사 사례<sup>8)</sup>

-‘하OOOO O’ 교회 - 코피노 아동센터(Mr. S\*\* / 코피노 20명)  
첫 번째 사례로는 아이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한국남성이 있고

두 번째 사례는 아이의 존재를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자확인(머리카 락)을 하였으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아이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알고도 결혼하였지만 그 남성의친구가 코피노에게 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다.

네 번째 사례로는 필리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를 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남성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여성과 결혼하 였기에 필리핀에 남겨진 여성은 이혼도 안되는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 야 하는 경 우가 있다.

다섯 번째 사례로는 한국남자가 필리핀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이 모 은 1,000만원정도의 돈을 여자에게 주고 간 한국남자가 있었는데, 그 필리 핀여자 를 한국에 데려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였다가 필리핀 여자가 바람을 핀 경우도 있다.

(Sh\*\*\* C)-28세

한국비자를 받기 위해 노력 중. 아들이름 크\*\* J 6살.

20살에 아이아빠와 만남. 아이아빠 이름은 제\*. 아이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만 난 후에 한국에 돌아감.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결혼하여 낳은 아 들이 2011년에 2살이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함.

Sh\*\*\* EPS Korea (eps.gov.kr)에서 제공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시험을 2012년 3월18일에 시험 보았고, 핸드폰에 제\*의 사진 과 자신의 아들 사진을 겹쳐서 갖고 있었다.

---

8) 2012.7.2.~ 6. (사)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 이현숙 상임대표, 오신성희 액팻 담당자가 필리핀 현 지 기관과 코피노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그 외 현지 타 기관 동행 조사 사례 더 있음.

○ 다른 기관을 통해 아버지 찾기 요청 또는 후원 요청 사례

1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국 약혼자가 있는 상태여서 이후에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코피노맘(Mic\*\*\*\*\*)에게 딸의 양육비 지급에 합의하였고 지금도 이행하고 있음.

2코피노맘(Lov\*\*\* G.)에게2012년 2월 이후 한국인 남자친구(주\*\*, 1993 년생)가 생겼음 4월에 임신하고 바로 5월에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에게 낙태의 목적으로 돈을 보내줌 (당시 남자친구 아버지의 친구가 한때 필리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었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으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눔.

3 CG라는 한국어 학원에서 일하던 여성과 학생인 한국남성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이해하는 관계였다고 함, 한국남성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데이트를 했고 성관계 함, 남성은 한국으로 가고 코피노맘의 친구가 임신사실을 남성에게 전하니 낙태 비용 30,000페소를 보냈고, 그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음. 하지만 코피노맘은 비종교적 행위여서 낙태하지 않음 남성의 사진이 있고 남성의 여동생과 카톡이 연결되고 전화번호는 있으나 연락은 안 됨.

4 코피노맘(Mel\*\*\*\* G.)한국남성의 포르노사이트 사업을 위해 만남, 한국 아버지(지\*\*)는 한국에 가족이 있었으나 숨김. KPI가라오케에서 처음 만났고 2003년 ~2005년까지 동거하여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남, 코피노맘은 둘째 아들(War\*\*\* G.) 출생신고 당시 미혼. 한국남성의 사진과 인적사항은 다 있었음. 본 단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전화 받은 사람이 친구라고 하며 연락 안 된다고 하며 피해서 확인이 불가능. 코피노맘은 소송의사가 있었음

5 코피노맘(Roa\*\*\*)과 한국남성은 업소에서 만남. 'Ste\*\*\*\*\*'의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사촌을 통해서 연락 가능했었으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았음.

6 코피노맘(Di\*\*\*)은 업소에서 한국인 남성을 만남, 당시 세부에서 대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남성은 임신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생활비 주기로 했으나 필리핀을 떠남

## 발 제

7 코피노맘(Lyd\*\*\* S)이 2011년 9월에 Volvo Bar에서 한국남성을 손님으 로 만 남, 그때 함께 나가서 데이트를 한 후 보지 못했음, 나이는 둘 다 24세 이며 아들 (Dan\*\*\* M\*\*\* S)은 2012년 세부에서 태어남, 한국인 남성에 대해 학생이라는 것 외에 이름도 모름. 한국인 남성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코피노맘은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계속 Bar에서 일하고 있음

○ 2013년 ~ 현재 까지 후원/ 소송 진행 및 준비 사례

구 분	출생/나이 /성별, 어머니 이름	내용	가명/ 정보 및 문제
1	98년 4월(만18세),남 2000년 7월(만16세) /여 /Ric****	2015년 9월 이후 아버지가 양육비 송금 부산가정법원 협의조정 완료 아프리카에서 결혼 후 필리핀 이주. 아버지를 떠남	선우, 선아 사례 법적 성인기준이 필리핀은 만 18세 / 한국은 만19세 국적과 군대문제
2	2010년 3월(만6세) / 여 / Je*****	이혼소송 중/ 인지청구 준비 아버지 전 화번호 주소 바뀜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한국 입국한 후 한국에서 만나 결 혼. 코 피노맘만 필리핀서 출 산 후 연락 끊김	현아 사례 한국에서 결혼, 해당구청 증명서 있음 엄마는 재입국 불가 아버지(고모포함) 정보가 있 으나 아버지 소재파악 불가
3	2012년 1월 (만4세) / 여 /Ce****	인지청구 준비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직원 인 남성 엄마가 특별한 육아로 직업 이 없이 몹 시 가난한 상태임	엄마 엘린 사례 아버지의 이름/ 회사 단체사진만 있음
4	2006년10월(만10세) 2008년 (만8세) / 모두 남 /Marl**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술 직 직원 2015년 8월 아버지가 아이 들 방문 및 양육비 지원	지호, 지성 사례 호적에 올릴 예정이었음. 부부사이 연 락이 이루어짐 코피노맘이 원치 않으 나 소 송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
5	97년 10월 (만18세) / 여 / Jos***	인지청구 준비 아버지 필리핀 여행가이드 임신 후 필리핀에서 혼인 기존 한국 주소지에서 이사 이모할머니가 키움	다솔이 사례 현재 어머니 행방 모르기 때문에 본인 이 한국나이로 만19세 되어야 소송가 능 (올해 10월)

① 선우와 선아의 이야기 <sup>9)</sup>

\_윤정현

선우와 선아는 고등학생이다. 선우는 18살이고 선아의 오빠이다. 그리고 이 둘은 한 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 잠시 아프리카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필 리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마닐라로 떠나가면서 아버지와 헤 어지게 되었다. ...

라구나 지역... 그 작은 길은 우리들을 모두 벽 쪽으로 바짝 붙어 걷게 만들었다. 조금 걸어 도착한 곳은 선우와 선아의 삼촌이 하시는 작은 가전제품 가게였다. 가게 안은 덩기도 하고 우리 인원 에 비해 비좁은 공간이었다. 7명의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 어서 서있었다. 그래서 선우와 선아의 삼촌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안내해줬다. 그곳 은 사진관이었다. 사진관 안은 후끈후끈한 사우나를 연상 할 만큼 더웠다. 모두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고 삼촌께서 우리를 위해 선풍기를 틀어주셨다.

그 뒤 선우가 들어왔다. 선우는 우리를 위해 의자를 가져다 줬고 선우 덕분에 다들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선아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바로 우리에게 온 것 같았다. ...

선우와 선아는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선우가 3살 때까지 살다가 왔다. 그 당시 선아는 너무 어려서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했고, 선우는 기억 끝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린 선우의 기억 속 아버지는 안 좋은 기억의 방안에 틀 어가 계셨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살 수 없음을 느낀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 리고 마닐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이들은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다.

---

9) 선우와 선아의 사례를 비롯한 5가정의 인터뷰 사례의 기록은 2015.7.13.~20,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지원을 받는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와 2012년 필리핀 현지조사를 통해 코피노 아동에 대한 관심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러 일으켰던 ECPAT Korea(탁틴 내일)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젝트로 탁틴이 후원하고 있던 필리핀의 코피노 가정을 방문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며 사례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4명(남지은, 송화연, 윤정현, 장슬기)과 김지혜 지도교수, 탁틴내일의 이영희 대표가 참여하였다.

그 후 2005년 아버지는 3일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아버지는 몰에서 쇼핑을 하시며 여가를 즐기셨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 하지만 두 아이들은 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이해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버지와의 추억은 이때뿐인 선아는 당시 행복했고 즐거운 기억이라고 했다. 선우도 이때 당시에는 행복했다는 말을 했다.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 3일이 영원하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와는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사진 얼굴을 보기도 하고 한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말로 번역 하며 연락을 어렵게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아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 움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말을 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아버지와 가끔 연락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가 일을 하신다고 했다. 어머니까지 해외로 가셔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부재로 남은 것이다....

선우는 “가족이 언젠가 다 같이 살았으면 해요.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선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고, 선아는 “저는 가족이랑 한국에서 다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게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선우 와 선아는 주말에만 같이 지내고 평일에는 떨어져서 지낸다. ...

선우가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나 학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 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우와 선아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선아는 학급친구들이 매운 음식도 못 먹는 가짜 한국인이라고 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선우는 한국인 성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

선아가 인터뷰 내용을 아버지가 봤으면 한다고 말을 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상황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 ...

선아는 “어머니가 안타까워요. 어머니가 2년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1월에 오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잠깐 휴가를 보내시고 다시 일을 하러 가야해 요. 그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우리들을 돌봐주시 고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지원해줬으면 해요” 라는 말을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고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 했던 것과 달랐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내내 흥미롭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 고 생김새가 우리가 만났던 코피노 아이들 중에 가장 우리와 비슷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선우가 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방문했는데 선우는 우리나라의 호적등본과 한국여권 등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들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 ②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 현아야

\_남지은

제인을 만나기 전날 밤 호텔 방 한 곳에 모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인터뷰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를 이토록 고민케 했던 것은 기본 정보에 의해 상상한 제인의 모습과 성격, 상황 때문이었다.

-33살 여성이다. 남편과 헤어진 뒤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남편과 낳은 5 살배기 딸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야 한다. 때 문에 남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가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 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좌절해 있고 남편을 찾는 것에 대한 의욕 또한 없는 상태이다. 단지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인데 현재 빛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인에 대한 주요한 정보였다. ...

제인은 현재 세부에서 여동생과 둘이 생활하고 있고 그녀의 딸 현아는 다바오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난 것은 2013년 여름이었으니 두 해가 지난 것이다. 작년부터 세부의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로 일하고 있고 주로 하는 업무는 세부에 딸린 작은 섬들이나 가까운 바다로 나가 스낵스쿠버다이빙 체험할 동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인은 2010년 현아를 낳았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일자리를 구해 그녀에게 딸린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다. 하지만 고향인 다바오에는 일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마닐라의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일을 하던 중 어린 현아가 너 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다바오로 돌아가게 되었다.

현아의 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다바오에 머물렀지만 어린 딸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기에는 너 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고 전에 도움을 받았던 친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아 현재 세부에 거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엄마의 품속을 항상 그리워할 현아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어린 딸과의 이별을 결심한 제인의 삶이 너무나도 애뜻하고 안타까웠다. 아쉽지만 일 년에 두 번 현아를 만나러 다바오에 휴가를 간다는 그녀는 마치 그 순간 다바오에라도 온 듯 설렌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현아의 생일이 3월 말이에요. 올해 3월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부쩍 많이 컸군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딸을 만나는 그 순간이요.”

제인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필리핀 여성들의 노동비율은 상당히 높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나 먼 타지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인 역시 그들 중 한명으로 2008년에 엔터테인먼트 비자(E6)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주 당시 필리핀의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한국생활에의 기대감을 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그녀는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며 미 군부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고용주와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모두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직원 중에는 같은 필리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많이 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레스토랑이 미군부대 근처에 있어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미국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았고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딱히 불만을 가졌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의 이주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레 한국인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08년 한국으로 이주하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때 남편을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그는 당시 10살, 15살짜리 딸과 아들이 있는 이혼남이었다. 하지만 그의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에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비자를 발급받고 2년의 체류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가진 채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과 한 달 정도 함께 생활을 했고 아이를 가진 제인과 남편은 법적으로 결혼 절차를 밟기 위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서류작업을 하는 동안이라도 짧게나마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한국 정부가 아닌 필리핀 대사 관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고 혼인서류를 작성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미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그녀는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필리핀의 기후에 익숙해 임신 초기의 몸 상태로 한국의 추운 겨울을 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필리핀에 돌아올 것을 결심했다. 당시에 남편은 제인 홀로 필리핀에 보내는 것에 반대했고 다투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법적 서류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필리핀에 오겠다는 남편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여권에는 불법체류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출산 후에도 여러 차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제인은 한국에서 결혼절차를 진행 할 때도,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도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이민제도나 다른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시 한국에 가기 위해서 불법체류 남인과 같은 본인에게 닥친 제도적인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은 세부 와는 멀리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 있기 때문에 일을 쉬고 시간을 내서 방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편은 그녀가 필리핀에 돌아온 후 한국에서 연락을 하곤 했지만 서류진행과정에서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중단되었다. 몸이 약했던 제인은 출산 할 당시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비가 비싼 필리핀에서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됐고 수년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한 출산 당시 병원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전혀 없었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과거에 남편을 떠나 홀로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에는 너무 서럽고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의 한국 자녀들이 성장기였고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해서 이 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딸 현아가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점점 커가는 데에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지요.”

“저는 남편을 찾아서 그의 한국자녀와 현아와 저, 이렇게 다섯이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남편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남편을 만나 그냥 우리에게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그녀 뿐 아니라 빠르게 자라고 있는 현아가 자주 아빠의 부재를 언급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더 조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그녀가 보관하고 있는 공식 서류들과 남편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받으며 인터뷰는 마무리되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주, 이민제도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과 제도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시대에 그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이주자들에 대해 하여 양국의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개개인에게 알맞은 정보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간이 걸려서라도 구축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었다.

### ③ 엘린의 이야기

윤정현

그리고 엘린과 제니퍼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비포장도로였고 물이 썩어 악취가나는 웅덩이도 많고 쓰레기도 많았다. 그래서 다들 발걸음을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었다. 그렇게 걸어서 도착한 곳은 엘린의 집이었는데 집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느낀 건데 계단이 상당히 크게 돼 있어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무서웠고 전선이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넘어질 것만 같았다.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 한명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았다. 그래서 한명씩 차례대로 들어갔다. 덩기도 하고 방도 좁아서 다들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니퍼의 집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왔을 때처럼 한명씩 차례대로 나가기 시작했다. 엘린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사우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느낌이 들었다.

엘린은 예전 엑팓코리아가 아버지 찾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한국대사관에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해서 한국에 오지 못했다. (이때 마닐라에가서 영상을 찍어 보낸 적이 있다.)

엘린은 민다나오에서 세부로 이사를 왔다. 그녀가 세부로 이사 온 이유는 일 자리를 얻기 위해 온 것이었다. 엘린은 세부 어딘가에 위치한 바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한국인 남편은 'OO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엘린 에 말에 의하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호텔에서 살았다고 한다. 엘린이 그 호텔로 자주 들리고 지내면서 그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 그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엘린이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호텔을 떠나 고향인 민다나오로 향했다.

...이때 당시까지는 몸만 떨어져 지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지냈기 때문이었다. 후에 전화가 와서 남편이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그때 엘린이 잘 못 지낸다는 말을 꺼내면서 임신한 것 때문에 금전 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했고 돈을 조금 보내달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이 12,000페소를 보내줬고 그 이후에 엘린은 남편과 연락이 끊겼다. 이유는 엘린 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전 통화에서 남편은 엘린에게 세부에서 계약이 끝나가고 있어서 한국으로 갔고 그 다음은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

아이는 현재 3살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공부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배운다 고 했다.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웃음을 띠우면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돈이 많이 들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전했다. ...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한국인 남성을 보면 아빠냐고 묻는 횟수도 점점 많아져 소송을 해서라도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엘린은 자신이 남편과 헤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변에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도 사생활 이라며 이름 외에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을 찾고 싶은 마음에 페 이스북을 통해 검색해봤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었다 고 했다.

이후 엘린은 한국인 남성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엘린의 주변에도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인 유학생들과 사귀기도 했는데 안 좋게 끝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엘 린은 한국인 남성들이 자기 자식을 찾으러 오지 않고 버리고 가는 것과 자신의 아이 를 떠나가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도 한국인 남성과 사귀면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인 남성이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결혼이 안 된다고 하면서 회피를 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엘린은 한국의 정부나 기업들이 필리핀으로 와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이익이 생겨 좋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엘린은 두바이에서 가정부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필리핀에서 일거리를 찾는 게 어렵다보니 계약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그 당시 두바이를 갔던 이유는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 쪽으로 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 고용주가 너무 나빴어요. 제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화가 나서 저의 옷을 찢어버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태워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데리고 오는데 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떠난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용주의 자매가 비행기표를 구해주며 저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오고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오화라는 단체가 재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고용주를 고소 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000페소를 받았어요.”

그녀가 치워야하는 집은 굉장히 넓었지만 일하는 사람이 혼자여서 더 힘들고 외로웠으며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말을 했다.

그녀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들었다. 듣는 내내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물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을 짐작으로만 할 뿐이었다.

#### ④ 지호와 지성이 이야기

\_ 장슬기

7월 16일 오후, 우리는 차를 타고 마닐라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탈락으로 지호와 지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호와 지성의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어머니는 필리핀분이신데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시다가 서로 일하는 곳이 가까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으로 함께 와 시청에서 결혼을 하고 지호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지호를 임신하고 한달 동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버지께서 다른 곳에 일을 하러 가셨다가 집에 다시 왔을 때는 지호가 1살 때였는데 3주 동안 있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지성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 재왕절개 수술을 하고 퇴원할 때 병원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또 다른 나라에 일이 있다고 하고 가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생계를 위해 싱가포르에 가서 가정 도우미로 일을 하고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호와 지성을 돌봐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꺼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인터뷰를 이끌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서 본 집은 굉장히 작았고 바닥은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바닥에 창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지호와 지훈이는 2살 차이가 나는 형제로, 한국 나이로 하면 지호는 11살 지성은 9살인데 지호는 친구가 많고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호의 이름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같이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로 과거에는 친밀하게 지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수이시고 할머니는 주부셨는데 지호가 2살 때부터 지호와 지성을 돌봐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앙헬레스 쪽에서 일을 했었고 싱가포르로 가신 건 최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호와 지성의 양육비는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다 부담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돌봐줘야 해서 일을 하러 나가실 수 없다고 얘기하실 때는 말 속에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집은 그 전에 살던 집에 산이 무너져서 그것을 피해 이사 온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1994년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이사 올 당시에 어머니는 어린 나 이였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기기술자이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지호와 많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22살 더 많았는데 집에서 지낼 때는 어머니와 잘지냈고 폭력도 없었고 부부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많이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식탁에 음식이 적게 올라갈 때 안타깝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데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드럼을 빌리는 것도 비싸고 사는 것도 비싸고 행진을 하는 것도 비싸고 교복도 필요해서 어 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뷰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호와 지성이가 아버지가 없거나 한국인이라고 해서 학교나 친구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학 교에 인권을 중요시 여겨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호와 지성이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지호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보고 싶었다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연락이 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키웠는지 말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⑤ 다솔이의 이야기

—송화연

“우리가 ‘코피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은가요?” 라는 질문에 “ ‘코피노’라는 단어로 인해서, 아버지를 찾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요.” 라며 다솔이는 상냥하게 대답해주었다.

.... 중략....

다솔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사라졌고, 3년 전에 어머니 또한 집을 나가 버려서 이모할머니와, 이모부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모 할머니를 엄마로 여기고 있었다. 지금은 대학생인데, 정보통신기술을 전공으로 배우고 있다.

사립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모할머니의 아들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공부를 좋아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다솔이는 성적 또한 우수해서 과에서 공부로 7등 안에 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다솔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찾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모할머니의 이야기로는 다솔이의 아버지는 여행 가이드를 했는데 다솔이의 엄마가 부동산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어느 날 이모할머니 가 다솔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솔이의 엄마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이미 다솔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다솔이 아빠와 함께 있었다.

지금 이 집에서 몇 일 있다가 아파트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서류를 준비해 공식적인 결혼(혼인신고)을 했다.

.....

다솔이의 아버지는 다솔이가 어릴 때 떠났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재는 이모부할아버지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았고, 이모할머니를 많이 의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가족이 오지 못 해서 많이 속상해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나는 감정이 95% 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요. 이러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나쁜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때야 하고 어머니는 어때야 한다 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아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빠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 기 때문이죠. 그럴 때 가끔 화가 나는데 그래서 싸움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 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은 아니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버지를 찾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다솔이는 “ 아버지를 찾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인간으로서 완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왜 떠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답해 주었다. 이미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송 다솔’로 한국인 성을 쓰기 때문에 ‘코피노’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엄마는 다솔이가 15살이 되던 해 생일에 갑자기 어디로 떠난 뒤 소식이 없다고 했다. “엄마가 떠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다솔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어머니도 나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떠났냐 고 묻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위의 실태조사 사례를 통해 한국아버지의 유형과 코피노 부모의 만남 그리고 코피노 출생과정을 살펴보면 1)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2)한국인 기업의 파견 직원 및 현지 사업이나 직업인으로 동거 및 혼인한 경우 3)유학생이 유학업소의 성매매나 학원 등에서 만남 후 일시적 또는 동거한 경우에 코피노가 출생하게 되었다.

한국남성들은 피임도구의 사용을 거부하고 어머니들은 가톨릭에서 낙태를 죄로 여 기는 종교적 이유로 대부분 코피노를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 코피노에 대한 한국아버지의 대응 태도를 보면 1)코피노 자녀가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2)임신사 실을 알고 아무런 지원 없이 연락을 끊거나 연락이 되어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 3) 임신사실을 알고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할 비용을 보내고 연락을 끊은 경우 4)아 기 임신사실을 알고도 한국에서 결혼 하거나 기혼임을 속이고 동거한 후 연락 끊은 경우 5)아기를 임신해서 같이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연락을 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6)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했으나 생활의 불안정으로 헤어진 후 연 락이 끊긴(끊고 찾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 5), 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지탄받아 마땅하다.

코피노 소송이 제기되거나 아버지 찾기가 진행되어 양육지원 일부라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버지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도 찾지 않는 상태로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어머니를 떠나 버린 한국아버지가 있을 뿐이고 더욱이 양육지원이라는 것조차 기대할 수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 부재’인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코피노 아동의 입장에서 한국아버지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생존권보장이 되지 못하고 필리핀의 열악한 여성노동환경은 어머니조차 일자리를 찾아 자녀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어머니의 부재를 함께 안고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본 탁틴내일이 지원하고 있는 가정들은 코피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가정으로 엑팓 필리핀에서 추천해주었기에 그래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어머니들은 주변 한국남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버리고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 3. 아동권리중심으로 본 코피노에 대한 지원의 대책

○ 유엔아동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6조의 2항은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조 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 아버지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소송이라는 방법 외에 ‘아버지 찾기’과정 중에 발생하는 장애를 해소하여 아버지가 양육책임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자 아동의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할 일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인적사항이 있으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현재 해외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지원처럼 주소지로 국가기관이 연락을 취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는 코피노 아동의 입장에서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사실상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2)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나 필리핀이나 한국인 아버지가 등재된 출생증명서 있는 경우 한국인의 해외동포 기준에 따라 모든 제도적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해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과 한국사회와의 통합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코피노라는 이유로 동남아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지원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3) DNA감식의 경우 양국에서 동시에 가능하도록 양국이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는 아버지가 부인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유전자 감식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협조가 쉽지 않으므로 코피노가 한국에 입국하여 유전자 감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보호자가 함께 입국해야하고 입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하다(아버지 찾기를 수락한 코피노맘 의 경우 탁틴내일이 보증한다고 했지만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불허되었다) 한국에 입국해서 검사하지 않고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자료 채취 에 대한 인증을 통해 양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의 경우 자녀를 찾는 친부모나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이 민간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DNA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DNA 분석을 의뢰하여 저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방식이 더 체계화 될 수 있는 경우 코피노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2조 1항에서 “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 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 27조 1항은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4항은“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 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지원의 관점과 대책이 필요하다.

1)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에 준해서 지원한다는 방향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언어의 소통이나 한국문화의 습득, 생존, 교육 등에 대해 당연히 지원하면서 단지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아이들을 모른 척 한다면 CRC 비준국가이자 UN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부끄러운 일 이다.

한국아버지를 둔 아동이 가난한 나라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것은아니다. 정부또한이같은현실이버젓이확산되고있음 에도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아동의 양육비보다 적은 양육비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데도 찾아올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기에 더 나쁘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아동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코피노 아버지의 사진을 게시한 블로그의 댓글에는 “잘하고 있다”, “한국남성들 정신차려야한다”, “책임져야한다”는 입장과 “필리핀 사회는 미혼모가 흔하다”, “우리나라 남성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문화를 잘 모르고 떠들지 마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서로 공방을 벌인다.

그런데 2015년 2차 코피노 실태조사차 방문했던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들은 교민들의 이야기도 후자의 논리와 비슷했다. “필리핀 아이들이 다 못 사는 데, 코 피노가 못 사는 게 무엇이 특별히 큰 문제인가?”, “필리핀이 모계사회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한국에서 일부러 부각시키고 떠들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한국인의 아이들인 코피노 아동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의 부재는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sup>10)</sup> 가난한 나라의 아동이면 아버지가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2) 해외 원조(ODA<sup>11)</sup>)사업이나 현지 한국 기업의 후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버지를 찾아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해야한다. 현재 민간이나 KOICA 사업을 통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코피노mam의 자활, 아동의 생활, 교육지원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경험하여 이후에도 한국인이거나 한국가족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앞의 보고서 지도교수

1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함.

한국기업의 인턴제도에 코피노 의 적극적 채용도 필요하다. 단 일자를 찾는 겨우 코피노인 자녀의 입장에서 한국과 필리핀 어디에서 생활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필리핀(동남아 국가)에서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 입 예방을 위한 성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아버지 찾기의 제도적 지원이나 양국 간의 공조를 위해서는 양국간에 특별한 협약이 필요하다.

성매매 범죄수사에 대한 공조를 위한 협약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양육을 강제하긴 위한 양국간의 협약도 필요하다.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2007(헤이그)협약”의 경우 양육부모가 외국에 있는 경우 비 양 육부모에 대해 지원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며 양국의 관리당국 사이의 책임성 있는 협력을 보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7협약에 최초로 서명한 국가이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sup>12)</sup>

이 협약은 중앙관리당국 이 부모 찾기(소재파악), 정보 및 관련 서류제공,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의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헤이그국제협약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이를 함께 고려하길 바란다. 이 협약 가입 전이라도 양국 간에 특별한 분야로서 협약을 먼저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12) Daniel. A. Edelson(2016), “아동양육과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2007(헤이그)협약”-「제 6 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 4. ‘버려지는’ 코피노 예방을 위한 대책들

○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외에도 ‘버려지는’ 코피노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 1) 코피노(동남아 국가 한국인 2세)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 지원 계획 수립
- 2) 성매매관광 및 현지에서의 ‘인권침해 성행동’ 예방을 위한 조치와 캠페인
  - ① 유학생과 동남아 파견기업 직원의 성매매 범죄 예방과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사전교육 의무화
  - ② 해외 여행객 대상 해외 성매매 처벌과 신고에 대한 영사콜 서비스 문자발송, 인천국제 공항 홍보물 등 적극적 안내와 홍보
  - ③ 적극적인 해외 성매매범죄 사법공조를 통한 수사, 인터넷상 성관광 모집에 대한 수사, 신고 유인책과 실제적 처벌
  - ④ 여행사의 여행안내 및 현지가이드 현지 여행 안내문에 성매매 처벌과 신고에 대한 안내 의무적 게재와 고지 의무화 등이다.



# “JFC(자피노) 지원정책 사례와 실효성”

JFN 네트워크 대표 이토 리에코

## JFC問題とは何か JFC문제란 무엇인가

——人權を考える——  
——인권을 생각하다——

特定非営利活動法人 J F C ネットワーク

事務局長 伊藤里枝子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J F C 네트워크

사무국장 이토리에코

## J F C とは？ J F C 란？

- JFC=Japanese-Filipino children

=日本人とフィリピン人を両親に持つ子どもたちの総称

=일본인과 필리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총칭

※多くは日本人の父、フィリピン人の母を持ちます。

- ※대개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 1. JFC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

### 1. JFC네트워크에 대해

- 1) 法的支援活動 (법적 지원 활동)
- 2) 生活・教育支援活動 (생활・교육 지원 활동)
- 3) 普及啓発活動 (보급계발활동)

もし、父親に見捨てられたら  
만약, 아버지에게서 버려지면  
もし、母国まで見放されたら  
만약, 모국에서도 외면을 당한다면  
「どうして僕は生きているんだろう？」

“왜 나는 살아 있는 것인가?”

「わたしは誰なんだろう？」

“나는 누구인가?”

この世で踏ん張る根っこというか、

이 세상을 버티는 뿌리랄까,

心の中でいちばん大切な自分を

信じる気持ちを失いかねません。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믿는 마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残念なことに多くのJFCが

きょうも、そんな不安と格闘しています。

유감스럽게도 많은 JFC가 오늘도 그러한 불안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わたしたちJFCネットワークは1994年5月に設立されたNPO法人です。

저희 JFC 네트워크는 1994년 5월에 설립된 NPO법인입니다.

マニラにある現地事務所や国内の弁護士と連携を取りながら、子どもたちをサポートする活動を続けています。

마닐라에 있는 현지 사무소와 국내 변호사들이 제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서포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全受理ケースの75%はクライアントがフィリピンに暮らしているケースです。

전체 접수 안건의 75%는 의뢰인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 1) 法的支援活動 (법적 지원 활동)

◆認知、養育費、国籍取得、子どもの引き渡し、離婚請求などの法的支援

◆인지, 양육비, 국적취득, 자녀인도, 이혼청구 등의 법적 지원

※法的オリエンテーション、

法的カウンセリングなどの実施

※법적 오리엔테이션,

법적 상담 등의 실시

※就労が目的化しやすい日本国籍取得の目的の啓発  
(就労ではなく尊厳回復のため)

※노동이 목적화하기 쉬운 일본국적 취득 목적 계발  
(노동이 아닌 존엄 회복을 위함)

## 法的支援オリエンテーションの様子 법적 지원 오리엔테이션 장면



## 2) 生活・教育支援活動(생활・교육 지원 활동)

- ワークショップの実施。奨学金提供。
- 워크샵 실시. 장학금 제공.

※ ワークショップの内容・目的：子どもたちが「ダブル」としての誇りや長所を伸ばせるよう日本語や日本の文化に慣れ親しむ活動を行う。

※ 워크샵 내용・목적：아이들이 “더블”로서의 자부심과 장점을 기를 수 있도록 일본어나 일본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 子どもたちが自分に自信をもてるよう図画工作やゲーム・ダンスなどによる自己表現のできる機会を持つ。

※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 공예나 게임, 댄스 등에 의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一方、母親に対しては、法律・法的手続きセミナーほか、移住労働者やジェンダーのワークショップセミナーを行う。また自助組織作りをすすめる、リーダーの育成や精神的サポートを目指す。

※ 한편, 어머니에 대해서는 법률・법적 수속 세미나 외에도 이주노동자나 성별 워크샵 세미나를 실시한다. 또한, 자조조직 설립을 권하며 리더의 육성과 정신적인 서포트를 목표로 한다.



日本についてのオリエンテーション  
일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養育費オリエンテーション  
양육비 오리엔테이션



裁判ケースオリエンテーション  
재판 사례 오리엔테이션



創作ワークショップ  
창작 워크샵



### 3) 普及啓発活動 (보급개발활동)

- スタディツアーの開催、ニュースレターの発行、ロビーイングなど
- 스타디 투어 개최, 뉴스레터 발행, 로비활동 등



## J F C 増加の背景

## J F C의 증가 배경

- 1980年代から日本へ出稼ぎのために入国するフィリピン人女性の増加
- 1980년대 부터 일본 내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증가  
↓
- フィリピン人女性と日本人男性の出会いが増える。
- 필리핀 여성과 일본 남성의 만남 증가

※クラブ、バー、スナックなどで働くフィリピン人女性たちとお客さんとしてお店に来る日本人男性たち

※클럽, 바, 스낵바 등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과 손님으로 가게에 온 일본 남성들

### 3) J F C 問題とは？

### 3) J F C 문제란 ?

- 1) 経済的問題 (경제적 문제)
- 2) 精神的問題 (정신적 문제)
- 3) 法的問題 (법적 문제)

### ① 経済的問題（貧困）

#### ① 경제적 문제 (빈곤)

◆在比・在日母子共通点◆

◆재필리핀・재일 모자의 공통점◆

※母子家庭が多い。

母の無職、低所得、父の養育放棄

両親の養育放棄

※모자가정이 많다.

어머니의 무직, 저소득, 아버지의 양육 포기

부모의 양육 포기

### 在比母子の経済的問題

#### 재 필리핀 모자의 경제적 문제

母無職・低所得 (어머니 무직・저소득)

+

社会保障システムの不十分さ (사회보장 시스템 불충분함)

+

父からの養育放棄⇒貧困 (아버지가 양육 포기⇒빈곤)

↓

母、海外出稼ぎ＝両親不在

어머니, 해외로 가서 돈벌이를 함= 부모 부재

母、他の家族を持ち別居

어머니, 새로운 가정을 가지게 되며 별거

⇒子どもの非行、母親への不信感

⇒ 아이들의 비행(非行), 어머니에 대한 불신감



### 在日母子の経済的問題

#### 재일 모자의 경제적 문제

- ほとんど母子家庭、生活保護受給
- 대부분의 모자 가정, 생활 보호 수급

↓※父からの養育費支援なし

↓※아버지로부터의 양육비 지원 없음

習い事、塾、旅行などに行けない。

학습, 학원, 여행 등에 참가 어려움.

+

#### 母子の言語障壁

모자간의 언어 장벽

↓

学力低下、不登校、非行、犯罪

학력저하, 등교 거부, 비행, 범죄

+

比家族への送金義務の狭間でのプレッシャー

필리핀 가족에게 송금해줘야 하는 의무감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

### ②精神的問題(정신적 문제)

- アイデンティティ危機  
정체성 위기
- 自己肯定感・自尊心の欠如  
자존감・자존심 결여
- 居場所がない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

「私は父と母のお陰でこの世に生を受けた。私は父を知らない。私は父を知らない限り、私の身体の半分は満たされず、ひとりの人間として完成しされない。

だから私は父を知りたい。」

“나는 아빠와 엄마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아빠를 모른다. 아빠를 모르는 한 내 몸의 절반은 채워지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알고 싶다.”

### ③ 法的問題(법적 문제)

#### a. 国籍確認訴訟(国籍法第3条)

국제확인소송(국적법 제3조)

##### <問題点>

結婚をしていない日本人の父と外国人の母を持つ子どもは日本人の父に生後に認知をされても日本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一方、胎児認知をされた子どもや認知され両親が結婚した場合には子どもは日本国籍を取得できた。子どもが認知される時期や両親が結婚したか否かで日本戸籍の取得に差別をもうけることはおかしい。

##### <문제점>

결혼하지 않은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생후에 일본인 아버지로부터 인지되어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편, 태아가 인지되거나 태아를 인지한 부모가 결혼했을 경우,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아이가 인지되는 시기나 부모의 결혼 여부에 따라 일본 국적의 취득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2005年4月12日、9名のJ F Cの子どもたちは、
- 2005년4월12일, 9명의 J F C의 아이들은

- 両親が結婚したかどうかによって子どもの国籍の取得に差別をもうける国籍法3条が憲法14条に反する
- 부모의 결혼 여부에 따라 아이의 국적 취득에 차별을 둔 국적법 3조가 헌법 14조에 위배

として、日本国籍の確認を求める訴えを東京地方裁判所に提訴しました。

한 것이라고, 일본 국적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판소에 제소했습니다.

## 憲法第14条第1項

### 헌법 제14조 제1항

-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り、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 最高裁判所で違憲判決!

###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

- 一審は勝訴、
- 控訴審は請求棄却
- 1심은 승소,
- 항소심은 청구 기각

2008年6月4日、最高裁判所は、

- ・ **国籍法3条1項が子どもの国籍取得において両親の婚姻を要件とするのは憲法14条違反である**

と違憲判決を下しました。

2008년 6월 4일, 최고재판소는

- ・ **국적법 3조 1항이 아이가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헌법 14조를 위반한다.**
- 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戦後、現憲法が制定されて以来、  
전후, 현 헌법이 제정된 이래,

- 8件目の違憲判決
- 8번 째의 위헌 판결
- 外国籍の子どもたちが原告として違憲判決を得たのは、はじめて
- 외국 국적의 어린이들이 원고로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

b. 国籍確認訴訟（国籍法12条）  
국적확인소송(국적법12조)

外国で生まれた婚内子は出生から3か月以内に、  
その出生を在外日本大使館または日本の市町村役場に届け出ないと日本国籍を喪失する。

외국에서 태어난 적출자는 생후 3개월 내에 그의 출생을 일본의 재외공관 또는 일본의 시정촌사무소(한국의 시읍면 사무소에 해당)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 戸籍のない子どもたち 호적이 없는 아이들

- 日本国籍のない子どもたちは、  
일본 국적이 없는 아이들은
- 父の戸籍に記載されないため、  
아버지의 호적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 戸籍上、父子関係の証明がない。  
호적상 부자관계의 증명이 없음

↓

- 相続が発生した時、子どもたちは相続人として認知されずに相続を行ってしまうため、紛争のものになっている。
- 상속이 발생할 경우 아이들은 상속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상속이 진행되므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 国籍確認訴訟提訴！ 국적확인소송 제소！

- フィリピンに暮らす子どもたち28名は、  
필리핀에서 사는 아이들 28명은
- 子ども本人の意思によらない国籍はく奪は、国民の権利保障を定めた憲法13条違反  
아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국적 박탈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 헌법 13조 위반
- 出生地や法的身分で婚内子を差別する同条は、法の下での平等を定めた憲法14条1項違反  
출생지나 법적 신분으로 적출자를 차별하는 동조(同条)는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1항 위반

と主張し、2010年2月2日、東京地方裁判所に提訴。

한 것으로 주장하며 2010년 2월 2일 도쿄지방법판소에 제소함.



- ・ 第一審：2012年3月23日、  
1名以外は請求棄却
- ・ 제1심：2012년 3월 23일,  
1명 이외는 청구기각
- ・ 第二審：2013年1月22日、  
請求棄却
- ・ 제2심：2013년 1월 22일,  
청구기각
- ・ 最高裁：2015年3月10日、  
上告棄却
- ・ 최고재판소：2015년 3월 10일,  
상고기각

**憲法違反との原告らの主張を否定した理由について、  
控訴審判決は、「一審が述べている通りである」と  
するのみで、自らは一言も憲法判断に触れていません。  
憲法に関する問題で、しかも国籍という非常に  
重要な事柄に関する事件にも関わらず、自らの言葉  
で合憲・違憲についての考えを語り、当事者を説得  
しようという姿勢が全く満たれません。司法の役割  
を放棄したとしかいえない判決でした。**

헌법위반과 원고들의 주장을 부정한 이유에 대해  
항소심판결은 “1심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고 할 뿐  
헌법판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관한 문제, 게다가 국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합헌・  
위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며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법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今後、リベンジを試みる予定です。  
 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앞으로, 재도전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 b. JFC를 타겟으로 한 악질 직업 소개 에이전트

### ① 東大阪市の例

介護会社で働くフィリピンからの女性たちが過酷な労働条件で働かされているという新聞報道。

### ① 히가시 오사카시(東大阪市)의 예

간호회사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

- ・ 週3回夜勤、低賃金、夜間の時間外手当不払、労災揉み消しパワハラ
- ・ 주3회 야근, 저임금, 야간의 시간외 수당 미지급, 산재 은폐 등 권력 악용
- ・ 来日前に「日本で死亡しても会社の責任不問」を約束させる誓約書へのサインの強要
- ・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사망해도 회사의 책임 불문”이라는 조항을 담은 서약서에 사인 강요
- ・ 来日に際する数十万円の不明朗な「手数料」の給与天引、強制貯金(積立金)など
- ・ 일본에 가기 위해 수십만 엔의 불투명한 “수수료”를 명의로 한 급여 공제, 강제 저금(적립금) 등

## どのような母子だったのか 어떠한 모자 었던가

- ・ 介護会社の女性たちは、日本人男性との間に生まれた小中学生になる子どもたちを連れて来日。
- ・ 간호회사의 여성들은 그녀들과 일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초, 중학생이 될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간다.
- ・ 子どもたちは父親との連絡が途絶えたJFCたち
- ・ 아이들은 아버지와 의 연락이 두절된 JFC들
- ・ 会社の狭い借上げアパートに母子
- ・ 회사로부터 좁은 공동주택을 빌려 모자
- ・ 30~40人で集住していた。
- ・ 30~40명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

## JFCとその母たちのたたかい JFC와 그들의 어머니의 싸움

### 母親たちのたたかい

(他の職場に転職済み)

### 어머니들의 싸움

(다른 직장으 로 전직 완료)

- ・ 2014年11月、JFCの母親のCさん(41)が、過剰に厳しい勤務を強いられたなどとして、寿寿に未払い分の賃金や慰謝料など約58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訴えを大阪地裁に起こした。
- ・ 2014년 11월, JFC의 어머니 C씨(41)가 과도하게 가혹한 근무를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간호회사 “쥬쥬(寿寿)”를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약 58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 2015年5月、JFCの母親9人が「奴隷のように働かされた」などとして、寿寿に対し、損害賠償を求めてに集団提訴。
- ・ 2015년 5월, JFC의 어머니 9명이 “노예처럼 일을 시켰다”는 등으로 간호회사 쥬쥬(寿寿)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단 제소



## ②岐阜のケース

### ②기후(岐阜)의 사례

・岐阜県警2015年2月と3月、岐阜県と愛知県内のパブなどを家宅搜索。就労資格のないフィリピン人女性たちを働かせているとして**入国管理法違反（不法就労助長）容疑**で、ブローカーの日本人男性やパブの経営者、従業員ら**合計11人**を逮捕・再逮捕。

・기후현(岐阜県) 경찰본부는 2015년 2월과 3월, 기후현과 아이치현(愛知県)의 술집을 가택수색함. 취로 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점으로 **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로 조장)** 혐의로 일본인 브로커 남성 및 술집 경영자, 종업원 등 **총 11명**을 체포・재체포함.

・一連の摘発で、パブで働いていた女性とその子どもたち（JFC母子）が多数保護された。

・일련의 적발로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과 그녀들의 아이(JFC모자)가 다수 보호 받게 되었다.

・ブローカーはフィリピンでJFC母子と接触し、「国際交流の推進」「就業支援」の活動を行うという一般財団法人の「看板」を掲げて、「日本国籍取得を手伝う」「工場仕事を紹介する」と持ちかけて勧誘し、渡航の手続き。

・브로커는 필리핀에서 JFC모자와 접촉하고 “국제교류 추진”,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반 재단법인의 “간판”을 걸고 “일본국적 취득을 도와준다”, “공장 일을 소개한다”고 권유하며 입국 절차를 밟게 함.

・「子の認知」「父親の遺産相続」などの訴訟提起を「目的」に、財団役員の弁護士が保証人。20～30代のJFC母子を短期滞在資格（観光ビザ）で入国させた。**弁護士費用の約束は60万円。** ⇒

岐阜と愛知を中心に80人以上のJFC母子が来日

・“아이의 인지”, “아버지의 유산 상속” 등의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재단 임원의 변호사를 보증인으로 세움. 20～30대의 JFC모자를 단기체류자격(관광비자)으로 일본으로 입국시킴. **약속된 변호사 비용은 60만 엔。** ⇒

기후와 아이치를 중심으로 80명 이상의 JFC모자가 일본으로 입국

## 今後の課題

### 앞으로의 과제

日本国籍を持つJFCが来日することは権利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JFC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권리

⇒ 安全な移住をどう保障するのか。

・実態の把握

・ブローカーや搾取的な仲介団体に依存しない来日、就労をどのように可能にするのか。

⇒ 안전한 이주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실태 파악

・브로커나 착취적인 중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취로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国境を越えるシングルマザーをめぐる課題

국경을 넘는 싱글맘을 둘러싼 과제

・当事者の権利意識の向上

・日本語教育などをはじめとする定住化支援

⇒ 自立支援の課題

・당사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

・일본어 교육 등을 비롯한 정착화 지원

#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 현황과 지원 대책”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변호사    고 지 운

##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현황과 지원 대책

발 제 : 고지운 변호사

### 【목 차】

#### I. 序言

#### II.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 1.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현황

가. 소송 前 단계(입국 절차에서의 문제)

나. 소송및그이후단계

##### 2. 지원대책

가. 사전 예방 단계에서의 지원

나. 소송및그이후단계

다. 소송後국적취득이후단계에서의지원

#### III. 結語

○참고문헌

## I. 序言

코피노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역시 수차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명 코피노 소송을 통 한 승소 사례 역시 2014년 처음 인정되고 언론에 소개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이 슈화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문제 제기 및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코피노 아동이 실제 소송 전 단계 및 소송 진행 중, 그리고 소송 이후에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 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 1. 코피노가 겪는 다양한 문제 현황

#### 가. 소송 前 단계(입국 절차에서의 문제)

외국인 신분인 코피노 아동이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母와 함께 입국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국 절차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 소송당사자로서 한국 방문시 비자(사증)발급 문제
- ▶ 한국인 남성(아버지)에 대한 소재 파악 이후 유전자검사 절차에서의 어려움
- ▶ 코피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비자(사증)발급 문제. 이 경우 본국에 있는 출생증명서류가 비자(사증)발급 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제.

## 나. 소송 및 그 이후 단계

인지청구소송 등 코피노 소송 진행 및 그 이후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 변호사 지원 및 소송 절차상의 문제
- ▶ 성인이 인지된 후 특별귀화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하는데, 이때 체류자격 발급문제
- ▶ 국적 취득 후 병역문제 등

## 2. 지원 대책

### 가. 사전 예방 단계에서의 지원

#### (1) 사전 예방의 필요성

코피노 아동은 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직원이나 유학생 또는 관광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대부분의 코피노가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라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예방일 것인데, 그 중에 서도 해외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 (2)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 방법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와 유사하게,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 파견 근무 직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출국 전 내지 출국 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유사제도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및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등을 발간하는 등 관련 교육 및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법률적 상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상담기관으로 연계하여 각종 상담 및 기타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코피노 아동 지원 역시 이러한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바, 우선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지에 있는 코피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코피노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 방침마련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성매매 예방관련 매뉴얼 내지 해외여행 시 지켜야할 수칙 등에 성관련 문제에 대한 항목도 포함하여 해외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하에 있는 대한무역진흥 협회(KOTRA)를 통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안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하는바, 해외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당시 파견 전후에 반드시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소송 제기 전후 단계에서의 지원

우리나라는 국적취득에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코피노 아동이 절차에 따라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민임이 확인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바, 우선 코피노 아동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미성년자이고 또한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법적 절차가 그렇듯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제대로 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하기에 우리나라 입국 절차 역시 코피노 아동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코피노 아동이 인지청구소송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리핀 국적자에 대한 체류자격{사증(비자)}발급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에 따라 코피노 아동(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코피노 아동의 母에 대한 동반 입국이 불가피하다) 및 그 母에 대한 체류자격{사증(비자)} 발급 시 심사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자격{사증(비자)} 발급 심사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 때 코피노 아동의 母의 직업이 일정치 않아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체류자격{사증(비자)}이 발급되지 않아 입국이 불허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결국 우 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본국에 거주한 채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성인이 된 코피노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피노 본인에 대한 직업 내지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발급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에도 성인이 된 코피노가 동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종종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관장하는 출입국 관리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체류자격{사증(비자)} 발급심사 시 필요한 내부 지침 및 관리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코피노 아동의 인지청 구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송 중 입증방법을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전자검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유전자검사를 본국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본국에서 실시한 유전자감정기관의 공신력을 문제로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약해지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사실 이다.

따라서, 전술한바와 같이 코피노 아동 및 그 母에 대한 입국 및 체류자격 발급 절차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본국에 있는 공신력 있는 유전자검사기관과 연계 등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다. 소송 後 국적 취득 이후 단계에서의 지원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父·母 의 모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코피노 아동 역시 소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 것인가 역시 고민해야할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위 다문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의 일부 내지 이와 유사하게 코피노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지원 방법으로는 교육, 문화체험 및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코피노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및 장학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I. 結 語

코피노 아동에 대한 문제는 이제 비단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권리 및 정체성 보장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계한인의 날을 맞이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코피노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다르지만 평등한)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 인권교육 기본교재」, 2011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9월 호」, 2014. 10.